

# 일본 학생 신문을 이용한 ‘액티브러닝’ 수업 사례 연구

조영희\*

(e-mail : yhee0410@ggu.ac.kr)

## <목 차>

- |                      |                          |
|----------------------|--------------------------|
| 1. 서론                | 5. 수업 설계                 |
| 2. ‘액티브러닝’의 개념 및 필요성 | 5.1. LMS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사전학습 |
| 3. 선행연구              | 5.2. 질문과 토의 중심의 본 수업     |
| 4. 수업 개요             | 5.3. 사후 학습               |
| 4.1. 수강학생 및 일본어 레벨   | 6. 수업 평가                 |
| 4.2. 수업 자료           | 6.1. 학생들의 반응             |
| 4.3. 수업 목표           | 6.2. 개선점                 |
|                      | 7. 결론                    |

키워드 : 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Active learning), 日本学生新聞(Japanese Student newspaper), 職業基礎能力(Key competencies),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パラフレーズ(Paraphrasing)

## 1. 서론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격변하면서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대학은 더 이상 학문을 탐구하는 상아탑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직업인양성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취업률이 대학평가의 중요한 잣대가 되면서, 대학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

\* 금강대학교 조교수 일본어학 어휘론, 통번역학

마련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학생들은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의미하는 ‘대학생 직업기초능력’으로써 ‘의사소통 능력’, ‘자원·정보·기술의 처리 및 활용 능력’, ‘종합적 사고력’, ‘대인관계 및 협력 능력’, ‘자기관리 능력’의 5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측정하는 ‘대학생 직업기초 능력 진단 종합 검사(K-CESA)’를 개발한 바 있다(이은화 외, 2011). 또한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직업의 미래(The future of the jobs)(2016)<sup>1)</sup>’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요구되는 직업 역량으로 다음의 열 가지를 들고 있다.

1. Complex Problem Solving(복잡한 문제 해결력)
2. Critical Thinking(비판적 사고력)
3. Creativity(창의성)
4. People Management(사람 관리)
5. Coordinating with Others(타인과의 협업)
6. Emotional Intelligence(감성 지능)
7. Judgement and Decision Making(판단과 의사결정)
8. Service Orientation(서비스 지향성)
9. Negotiation(협상력)
10. Cognitive Flexibility(인지적 유연성)

위에 든 두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도래할 시대에는 세부적인 특정 전공의 지식의 축적 여부 보다는 통섭적인 사고력과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대학의 교육이 지금까지와 같은 지식 축적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앞으로 요구되는 상기의 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춘 교수법을 고민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외국어 전공은 해당 외국어의 습득이 일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지식 주입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외국어 습득의 과정도 교수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외국어 지식을 전달하고 주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상기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수업 방식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최근 각 대학은 ‘블렌디드 러닝’, ‘플립 러닝’, ‘PBL수업’ 등 다양한 교수법을 도입하고 있다. 필자 역시

1) <http://www.weforum.org/reports/the-future-of-jobs>

이러한 고민 하에 학생주도 수업 즉, ‘액티브러닝’ 방식을 수업에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학생신문을 이용한 ‘액티브러닝’ 수업의 수업 설계 방법 및 해당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시행착오 및 개선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2. ‘액티브러닝’의 개념 및 필요성

‘액티브러닝’이란 일반적으로 학생주도, 또는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정도로 이해되고 있는데, ‘액티브러닝’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왜 그것이 미래지향적인 학습법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액티브러닝’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을 인용한다.<sup>2)</sup>

溝上(2014)는, 능동적학습 전부를 ‘액티브러닝’으로 보고 쓰기·말하기·발표하기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인지(認知) 프로세스의 외화(外化)를 동반한 학습이라고 한다. 즉, 단순히 말하기와 쓰기를 하면 액티브러닝인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활동을 통하여 수용한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발신하는 기능과, 그를 위해 필요한 태도와 능력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액티브러닝이라고 溝上은 말한다. (溝上(2014):船橋(2016), p.2에서 재인용)

船橋(2016)에서는 溝上(2014)의 분류를 인용하여 ‘액티브러닝’의 ‘전략성’의 정도에 따라 액티브러닝형 수업이 4개의 타입으로 나뉜다고 소개하고 있는데<sup>3)</sup>, 이 분류에 의하면 ‘전략성’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수업 시간에 학생이 행하는 모든 수업 활동, 즉 말하기, 프레젠테이션, 토론, 협동 학습, PBL형 수업 등이 모두 ‘액티브러닝’인 셈이다. 그러나 溝上(2014)가 강조한 것은 단순히 활동의 주체가 학생이나 아니냐가 아니라, 그런 활동을 통하여 수용한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발신하는 능력 및 그에 필요한 태도와 능력의 함양이야말로 ‘액티브러닝’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식 이전에

2) 船橋(2016) 「外国人学生の自律的な日本語学習を支えるしくみ-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における位置づけ-」 『鈴鹿大学紀要Campana』 22, p.2. 원래 논문은 溝上慎一(2014) 『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と教育学習パラダイムの変換』 東信堂, 번역은 필자에 의한.

3) 위의 논문 船橋(2016), p.3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통섭 능력이 요구되는 앞으로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문부과학성이 중앙교육심의회에 ‘중장기적인 대학교육의 위상에 대해’ 자문을 구한 결과, 심의회가 내놓은 답신에서도, 앞으로 도래할 시대에 대비하는 교육방식으로 액티브러닝을 제안하고 있다. 거기에는 사회구조가 급변하면서 기존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가운데, 앞으로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액티브러닝(능동적학습)’이 대안적인 교육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sup>4)</sup> 또한, 효과적인 ‘액티브러닝’을 위한 구체적인 수업 방식, 즉 사전 준비, 토론 중심의 수업 수강, 이를 심화시키는 수업의 사후 전개 등 구체적인 ‘액티브러닝’의 방법도 제시되어 있다. 이하, 해당 부분을 인용하기로 한다.

평생에 걸쳐 학습하는 힘,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가진 인재는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동적인 교육의 장에서는 육성할 수가 없다. 종래와 같은 지식의 전달·주입 중심의 수업에서 교원과 학생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함께 절차탁마하여 서로에게 자극을 주면서 지적으로 성장하는 장을 만들고, 학생이 주체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답을 찾아가는 능동적학습(액티브러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중략)그러나 종래의 교육과는 질이 다른 이와 같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수업을 위한 사전 준비(자료 조사와 독서, 사고, 학생 상호 간의 토론, 다른 전문가 등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수업 수강(교원의 직접지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원과 학생, 학생 상호 간의 대화와 의사소통)과 사후 전개(수업내용의 확인과 이해 심화를 위한 탐구 등)을 촉진하는 교육상의 장치, 인터넷과 서비스·러닝, 유학체험과 같은 교실 외 학습 프로그램 등의 제공이 필요하다.(중앙교육심의회(2012, pp.9-10))

상기의 두 가지 인용을 통해, ‘액티브러닝’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 도래하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학습방법임을 확인하였다. 이 밖에도 한국 대학의 일본어 교육의 현장 상황이 예전과 달라지면서 ‘액티브러닝’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각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이 통합, 해체되고 교양교육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학습의욕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지만, 지금은 비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많다. 비

4) 中央教育審議会(2012)「新たな未来を築くための大学教育の質的変換に向けて～生涯学び続け、主体的に考える力を育成する大学へ～」, pp.9-10, 번역은 필자에 의함.

전공 학생들은 전공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의욕이 떨어지며, 개중에는 교양필수나 졸업인증 때문에 전혀 흥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을 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학생들의 학습의욕 및 흥미도는 수업 운용에서 중요한 변수이다. 학습 의욕이 저하된 학생들은 특히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지식을 수용해야만 하는 입장에 처하면 수업에 대한 흥미도는 더욱 저하된다. 따라서, 스스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액티브러닝' 수업으로 흥미를 유발할 필요가 있다.<sup>5)</sup> 그런 점에서도 '액티브러닝'이 효과적인 학습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3. 선행연구

최근 교육의 트렌드가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옮겨가면서 일본어교육에서도 학습자 중심 수업과 관련된 플립러닝이나 e-learning, 블렌디드러닝 수업 사례를 보고한 선행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조선영(2013)에서는 e-learning을 활용한 교양수업의 사례를 보고하였는데, 최근 각 대학별로 e-learning 환경이 구축되면서 수업에서 e-learning을 활용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조대하(2016)에서는 일본어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한자 학습에 플립러닝을 활용하여 한정된 수업 시간 외에 사전예습 사후복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PBL방식을 적용하여 학습자의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킨 사례를 보고하였다. 이정희(2015)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수자가 중심이 되어 이론중심 수업이 이루어지기 쉬운 문학수업에서 포트폴리오 제작과 독서토론을 가미한 학습자 중심 수업사례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대학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수업 방식이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좋은 참고자료가 되며 여러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교수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수업의 많은 부분이 학생들 간의 질문과 토의로 진행되도록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킨 액티브러닝 수업 사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수업 설계와 시행착오 또한 여러 연구자들의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5) 넓은 의미에서 LMS를 활용한 e-learning도 액티브러닝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영(2013)에서는 교양교육 일본어 수업에서 e-learning을 활용한 결과, 학생들의 학습성취도는 물론 학습 의욕 고취에 도움이 되었다고 고찰하였다.

## 4. 수업 개요

### 4.1 수강학생 및 일본어 레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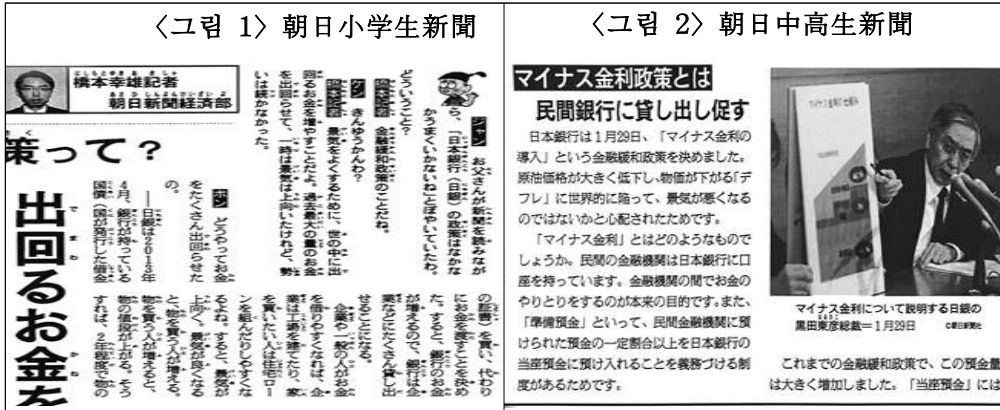
‘시사경제 일본어’ 수업은, 2016년도 2학기에 본교 국제통상통역학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수업으로 주 1회 150분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국제통상통역학 전공 과목이지만 실제로 수강한 학생들은 일본어통번역학과 고학년 학생과 국제통상통역학과 학생들이 섞여 있었고, 그중에는 1년 일본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고 온 학생도 있어서 평균적인 일본어 레벨은 높은 편이었다. 전체 수강생은 7명이며 일본어 레벨은 JLPT N1이 3명, JLPT N2가 1명, JLPT N3가 2명 이고 일본인 복수학위생이 1명 같이 수강하였다.

### 4.2 수업 자료

수업 자료로는 신문을 사용하였다. 신문 자료를 선택한 이유는 일본어 학습 면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시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일본 사회를 이해하기에 효과적이고, 평소 학생들이 접하는 빈도가 낮은 문장체 표현을 익힐 수 있다는 장점 외에, 시사적인 주제와 관련된 분석 기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학부생의 수업에서 일본 신문을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초중고등 학생용으로 간행되는 학생 신문을 활용하였다.<sup>6)</sup> 일본에서 발행되는 학생 신문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수업에서는 아사히신문사에서 발행되는 아사히 학생 신문을 사용하였다.<sup>7)</sup> 아사히 학생 신문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사히초등학생신문(朝日小学生新聞)’과 ‘아사히중고등학생신문(朝日中高生新聞)’이 있다.

6) 신문과 비슷한 학습 효과를 볼 수 있는 자료로 뉴스를 들 수 있는데, 최근에는 각 뉴스 사이트에 음원과 텍스트가 공개되어 있는 것이 많다. 그러나 일반 뉴스는 학생들이 학습하기에는 너무 난이도가 높고, 또 쉬운 버전의 뉴스는 내용이 간략하고 사실 전달 위주의 것이 대부분이어서 분석적·비판적 사고력을 익히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7) 아사히학생신문사 주니어아사히(<http://www.asagaku.com/>)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다. 일본 국내에서는 배달서비스가 이루어지고 해외에서는 해외전자판(<http://www.asagaku.com/digital/ld.html>)으로 이용 가능하다. 구독료는 매일 발행되는 ‘아사히초등학생신문’은 매월 1,720엔 주1회 발행되는 ‘아사히중고등학생신문’은 매월 940엔이며 해외 전자 판의 경우 열람기간이 제한된다.



〈그림1〉과 〈그림2〉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아사히초등학생신문’은 후리가나가 달려 있어 학생들이 읽기에 부담이 적고, 심층 분석 기사의 경우 캐릭터가 질문을 하고 기자가 알기 쉽게 답변하는 형식의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어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쉽다. 그에 비해 ‘아사히중고등학생신문’은 후리가나가 달려 있지 않고 어휘 난이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한자어가 많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수업에서는 ‘아사히초등학생신문’을 사용하였다. 다음은 실제 수업에서 사용한 기사의 목록이다.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다룰 수 있도록 선택했고 사실과 지식 전달 위주의 기사 보다는 하나의 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기사 위주로 선택했다.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民進党が出発</li> <li>▪ 初の女性都知事誕生</li> </ul>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あるんだよ式千円札</li> <li>▪ 日本の金融緩和政策</li> <li>▪ 消費増税再び延期へ</li> </ul>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築地市場の移転問題</li> <li>▪ 天声こども語</li> <li>▪ 見直される公衆電話</li> <li>▪ もっと知りたい つめこみ→ゆとり→学力アップ</li> </ul>
〈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スチール缶「改革」</li> </ul>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大丈夫かい ら抜き「見れる」「出れる」気になる?</li> <li>▪ 欲ばりなあなたへ</li> </ul>

### 4.3 수업 목표

수업 목표로는 다음의 다섯 가지를 설정하였다. 일본어 향상 및 일본 사회에 대한 이해와 심화 외에, 자기주도학습 능력, 발표 및 토의를 통해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수강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배양에도 중점을 두었다.

- ① 일본 사회의 최근 이슈를 알아보고 일본 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 ② 신문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와 표현, 문형 등에 대해 학습하고 일본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킨다.
- ③ 텍스트 주제와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배경지식을 습득한다.
- ④ 어휘 및 시사용어의 사전 조사 및 발표를 통해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키운다.
- ⑤ 사전 조사 내용 및 텍스트의 내용을 다른 수강생 및 교수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운다.

## 5. 수업 설계

### 5.1 LMS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사전학습



〈그림 3〉 수업의 흐름

실제 수업은 〈그림 3〉에서 나타냈듯이,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활용한 사전학습과 본 수업, 그리고 사후수업의 세 가지 파트로 나



누어 설계되었다. 본 수업은 수업 1주일 전부터 이루어지는 사전예습과, 본 수업이 끝나고 이루어지는 사후복습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사전예습과 사후복습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때, 본 수업의 학습효과는 극대화된다.

먼저 LMS를 활용한 사전학습부터 설명하도록 한다. 학생 신문이지만 다루고 있는 내용이 시사적인 것이고, 학생들이 접해본 적이 없는 배경지식을 요하는 기사가 많으며, 어휘 또한 일상 회화문의 어휘가 아닌 문장체에서 사용되는 어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한정된 수업 시간에 모두 학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배경지식이나 새로운 어휘 등을 교수가 일방적으로 가르쳐주면 학생들은 수동적인 태도로 임하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하는 사전학습이 바람직하다. 최근 각 대학마다 LMS를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본교에서도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본 수업에서는 LMS를 활용하여 자기주도적 사전학습을 유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p>&lt;교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의 1주일 전에 다음 주에 다루는 텍스트의 제목을 미리 공지한다.</li> <li>▪ 텍스트 어휘 중 사전 학습이 필요한 어휘 리스트를 제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해당 어휘로 작문을 하여 LMS로 제출하도록 한다.</li> <li>▪ 용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기사 내용의 이해가 용이한 시사용어를 선정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LMS로 제출하도록 한다.</li> <li>▪ 추가적으로 텍스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도록 LMS 상에 과제로 제출하기도 하였다.</li> </ul>
<p>&lt;학생&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가 사전 공지한 어휘 작문 및 시사용어 조사 내용을 수업 시작 전날 오전까지 LMS에 제출한다.</li> </ul>

사전 조사한 시사용어로는 ‘유신당(維新の党)’ ‘집단적 자위권(集團的自衛權)’ ‘금융완화정책(金融緩和政策)’ ‘국채(國債)’ ‘장기금리(長期金利)’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대기아동 대책(待機児童対策)’ ‘소신표명 연설(所信表明演說)’ 등이 있었고 작문을 한 단어로는 ‘返り咲く’ ‘上向く’ ‘試金石’ ‘ゆかり’ ‘下回る’ ‘差し迫る’ ‘ツケを回す’ ‘見送る’ 등이 있었다.

학생들은 LMS에 미리 제시된 신문기사의 제목을 보고 다음 주에 배우게

될 내용을 미리 짐작할 수 있으며, 열의가 있는 학생들은 스스로 관련 정보를 미리 검색해볼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어휘 학습을 하고 수업에 임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어휘 조사에 할애되는 시간을 줄이고 내용 파악에 집중할 수 있으며 모르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줄일 수 있다.

학습할 내용이 교수에 의해 지정하고 평가와 연계되기 때문에 강제적인 면도 있지만, 사전에 아무런 연습 없이 수업 시간에 교수가 제시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업 방식에 비하면, 학생 스스로 조사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 5.2 질문과 토의 중심의 본 수업

본 수업은 크게 나누면 LMS로 제출한 사전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과, 텍스트 내용을 이해하는 부분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LMS시스템을 활용하면 컴퓨터 상에서 학생들의 학습이력은 용이하게 파악이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제를 하면서 이루어진 학습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지식으로 체득되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 사전에 학습한 내용 및 텍스트의 내용을 구술로 다른 수강생들에게 설명하도록 하여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사전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 1) 사전 학습 내용 발표 및 수정, 공유

본 수업에서는 먼저 LMS의 사전 학습 내용을 발표하고 수정,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강생들은 지정된 어휘로 사전에 작문한 문장을 수업 중에 발표했고, 어색한 부분은 수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동일한 어휘에 대하여 본인이 작문한 것 외에, 다른 학생들이 작문한 다양한 예문을 공유하면서 어휘의 쓰임새를 확인할 수 있다. 어휘 작문 발표에 이어 사전에 조사한 시사용어도 발표를 한다. 보통 시사용어를 조사해오게 하면, 인터넷에서 복사한 내용을 LMS상에 그대로 붙이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조사한 내용을 다른 수강생 앞에서 구술로 설명하도록 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하도록 설명하려면 반드시

내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조사한 내용을 이해해 와야 한다. 실제로 수강생들은 타인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잘못 이해한 부분을 깨닫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강생들 상호간에 각자 이해한 내용을 설명하고 토의하면서 이해의 완성도를 높이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로 조사해온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부분을 서로 공유하면서 더 많은 지식을 학습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고, 구술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토의로 이어지기도 했다.

## 2) 텍스트 이해

사전 학습 내용을 수정하고 공유한 후에는, 본격적인 텍스트 이해에 들어가게 된다. 이 수업은 신문기사의 시사주제에 대해 공부하면서 일본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목적이므로, 신문기사를 읽고 해석번역하는 학습 방법 보다는 깊이 있는 이해를 지향하였다. 먼저 텍스트 전체를 읽고 다시 세부 단락별로 읽으면서, 각 단락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교수가 학생들에게 일본어로 하고, 거기에 일본어로 답하게 하였다. 질문은 세세한 사실 확인부터 단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게 하는 식으로 이어진다. 일본어 레벨이 높은 학생들은 일본어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하라고 하면 거의 막힘 없이 번역이 가능하다. 그러나, 번역은 가능하지만 텍스트의 내용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이런 문제를 질문하고 답하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찾아낼 수가 있었다. 텍스트의 내용 이해가 정확하지 못할 때는, 교수가 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학생들 상호간에 모르는 부분을 서로 설명해주도록 유도하였다. 학생의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교수가 설명을 해주면 학생은 그것을 정답으로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된다. 이와 달리 학생 상호간에 설명과 질문을 하게 하면 교수와 학생이 주고 받을 때와는 달리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더 활발한 질문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교수가 정답을 설명해주면 빨리 정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지만 수동적인 학습태도로 임하는 반면, 학생들 상호간의 토론과 이해는 시간은 더디게 걸리지만 비판적 사고와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5.3 사후 학습

하나의 신문기사 텍스트의 학습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내용이해 확인 및 일본어 표현력 향상을 위해 바꿔쓰기(Paraphrase)나 기사 내용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하게 하였다. 바꿔쓰기란, 학습자가 이해한 텍스트의 내용을 원문과는 다른 일본어 표현으로 다시 작성해보는 것이다. 이때 학습자는 어휘 레벨에서 다른 표현으로 표현 할 수도 있고, 또는 통사구조 전체를 바꾸어 작성할 수도 있다.<sup>8)</sup> 이는 학습자의 일본어 레벨에 따라 달라진다. 바꿔쓰기의 결과물을 보면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기사의 주제에 따라서는, 기사를 읽고 난 다음 느낀 바를 정리하는 에세이를 작성하기도 했다.<sup>9)</sup> 에세이 작성 시에는 100% 일본어로 작성하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어와 한국어의 비율을 적절하게 섞어서 작성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10행 정도의 에세이를 작성하게 한다면, 5행은 일본어, 나머지 5행은 한국어로 작성하게 하는 식이다.

강의 후 바꿔쓰기 또는 에세이를 정리하여 LMS 과제란에 다음 주까지 제출하게 했고 다음 수업에서 교수가 일본어 표현 및 내용에 대해 첨삭, 개별 지도하였다.

## 6. 수업 평가

### 6.1 학생들의 반응

본 수업에서 교수의 역할은 학습할 텍스트 선정, 사전학습 내용 제시 및 확인, 텍스트 이해 정도 확인, 바꿔쓰기 또는 에세이 첨삭이다. 수업의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고 진행하면서, 텍스트 내용을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기존의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에 비하면 교수의 역할은 축소되고 학생

8) 조재영(2001, p.289)에서는 ‘명료하고 정확한 원문 의미의 파악을 위해 바꿔쓰기는 풀어쓰기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아주 긴요한 기능을 갖는다’고 하여 바꿔쓰기가 정확한 원문의 의미파악에 유효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9) 예를 들어, 츠키지시장 이전 예정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있었고 이를 이유로 새로 도쿄 도지사에 당선된 고이케씨가 이전 자체를 중단시킨 기사를 다룬 후에 작성한 에세이에서는, 안전대국으로 알고 있었던 일본의 새로운 면을 알게 되었다, 이런 유의 부실공사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 주도하는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주도하는 비중을 더욱 높이기 위해, 중간고사 이후에는 실제 수업에서 텍스트 내용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도 학생들이 주도하도록 변화를 주었다. 즉, 중간고사 이전 수업에서는 텍스트 내용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수가 학생에게 질문하고 학생들은 모르는 어휘나 내용을 교수에게 질문하였지만, 중간고사 이후에는 텍스트를 단락으로 나누어 담당할 학생을 미리 지정해주고, 본 수업에서 담당 학생이 수업을 주도하면서 다른 수강생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였다. 또 학생들이 모르는 어휘나 내용이 있을 때는 교수가 아닌, 그 부분을 담당할 학생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 상호간의 토의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가 개입하였다. 이렇게 변화를 주었을 때의 장점은, 교수가 주도할 때에 비해 학생들 상호간의 질문과 답변, 토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다만, 학생이 수업 진행을 주도하는 수업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자유롭게 토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칫 기사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흐르기 쉽고, 친밀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반말 사용 등으로 인해 수업 분위기가 흐려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교수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문제점이 없지는 않지만 학생이 주도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도는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중간고사 전후의 수업을 비교하여 만족도를 조사하였을 때, 수업에 참여한 학생 전원이 중간고사 이후의 학생이 주도하는 비중이 늘어난 수업의 만족도가 높다고 답변하였다.<sup>10)</sup>

## 6.2 개선점

다음으로, 액티브러닝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 1) 텍스트 선정

수업시간이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닌,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려면 스스로 알고 싶다는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텍스트 선정이

10)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간고사 전후를 비교한 수업의 만족도 조사는 수업시간에 1:1 대면으로 이루어졌고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한 이유도 답변하게 했다. 학생들이 답변한 이유는 주로 수업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많아서, 덜 지루하다 등이었다.

중요하다. 이 수업에서는 일본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 심화를 목적으로, 신문기사 중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의 기사를 교수가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수업을 진행하면서 텍스트의 주제에 따라 학생들의 흥미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실제로 텍스트를 학생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다시 말해, 텍스트 선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면 학생들이 흥미를 더욱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텍스트 선정을 전적으로 학생들에게 맡기다보면 특정 분야의 텍스트에 치우칠 수 있으므로, 교수가 선정한 텍스트와 학생들이 선정한 텍스트를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텍스트 논지 파악 확인 장치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텍스트 해석이 반드시 텍스트 이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국어 해석은 가능하지만 막상 이해한 내용을 구술로 설명해보라고 하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었다. 일본어 지식은 충분하지만, 해당 분야의 배경지식이 부족하거나 표면에 표현되지 않은 함축적 의미를 생각하며 읽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일본어 어휘나 문법의 지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텍스트 이해력 또한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이므로 논지 파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교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3) 수업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방식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교수자가 학생이 얼마나 지식을 잘 흡수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주로 일본어 어휘 테스트나 번역 시험 등이 그런 평가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본 수업에서는 일본어 습득 외에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텍스트 이해력, 표현력 등의 역량을 키우는데에도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해당 역량을 얼마나 발휘했는지 여부가 평가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했다. 물론, 평가 항목에 LMS 활용도와 발표 항목이 포함되기는 했으나, 중간과 기말 고사는 기존의 시험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처럼, 수업 목표의 달성치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의 잣대가 정밀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고, 향후 액티브러닝 수업을 지

향하면서 고민하면서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 4) 배경지식 이해의 부담감

학생과 교수 모두 경제나 정치 등 특정 전문분야의 텍스트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해당 분야의 배경지식이 부족하여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다. 본 수업에서 다룬 신문기사 중에서는 특히 경제 분야와 관련된 개념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일본어 전공 학생들은 교양 수업 이외에는 이런 분야를 접할 기회가 없고, 좋아하는 일본어 전공 수업만 집중적으로 수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취업 및 대학교육의 트렌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어 수업이기는 하나 배경지식을 습득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해당 분야의 교수 혹은 대학원생 등을 수업시간에 초빙하여, 미니 특강을 진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를 이해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 7.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일본 학생 신문을 이용한 액티브러닝 수업 설계와 실제 운용 방법, 학생 만족도, 수업 후 느낀 개선점 등에 대해 고찰하고 보고하였다. '시사경제일본어' 수업은 사전 학습과 본 수업, 사후 복습의 세 가지 파트가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사전 학습에서는 교수가 제시한 어휘의 일본어 작문과 시사 용어 조사를 LMS로 제출하도록 하여,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하고 수업에 대한 부담감을 줄였다. 본 수업은 크게 사전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 공유하는 부분과 텍스트를 이해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사전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 공유하는 시간에는 구술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실제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학생 상호간 토의를 통해 해결하였다. 텍스트 이해 역시 질문과 토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해한 내용을 구술로 설명하게 하여 텍스트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였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학생 상호

간의 토의로 해결하도록 유도하였다. 사후 복습으로는 수업에서 다룬 텍스트 내용에 대해 바뀔쓰기나 에세이를 작성하여 LMS로 제출하게 한 후, 교수가 첨삭하였다. 사후 복습을 통해 일본어 표현력을 향상시키고 텍스트 이해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액티브러닝 수업에 대해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특히 중간고사 이후 학생들이 주도하는 비중을 늘려서 변화를 준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높았다. 그 밖에 텍스트 선정, 텍스트 논지 파악 확인 장치, 수업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방식, 배경지식 이해의 부담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었고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본 수업에서는 기존의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에 비하면, 교수의 역할은 축소되고 많은 부분이 학생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교수는 학생들이 해결하기 힘든 부분에만 최소한으로 관여하고, 사전 어휘와 시사용어 조사, 사전 학습 내용의 이해와 공유, 텍스트 이해 등 많은 부분이 학생들 간의 질문과 토의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된다. 여러 선행 자료에서 앞으로 도래할 시대에는 스스로 학습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런 의미에서, 액티브러닝 수업은 미래지향적인 수업방식으로써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수업은 일정한 레벨 이상의 일본어 실력을 갖춘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편이어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비교적 용이한 편이었다. 교양수업의 경우는 학생들의 레벨도 천차만별이고 수업에 대한 집중도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액티브러닝 수업 설계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 이은화·윤소정·허승희(2011) 「대학의 직업기초능력 교육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인식 차이: A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30-4, pp.51-67.
- 이정희(2015) 「토론수업을 활용한 일본문학감상의 Active Learning-아베 고보 (安部公屋) 『모래의 여자 (砂の女)』를 중심으로-」 『韓國日本文化學報』 66, pp.165-167.
- 장경원·고수일(2013) 『액션러닝으로 수업하기 2판』 학지사, pp.13-27.
- 조대하(2016) 『語文學』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을 활용한 일본어교육 사례 연구」 pp.187-206
- 조선영(2013) 「e-learning을 통한 수업 보조수단의 활용효과-교양교육으로서의 일본어수업에서-」 『日本語教育研究』 26, pp.150-156.



조재영(2001) 「번역에서의 바꿔쓰기」 『언어와 언어학』 26, p.289.

최정임·장경원(2010) 『PBL로 수업하기 2판』 학지사, pp.15-38.

中央教育審議会(2012) 「新たな未来を築くための大学教育の質的変換に向けて～生涯学び続け、主体的に考える力を育成する大学へ～」 [http://www.mext.go.jp/component/b\\_menu/shingi/toushin/\\_icsFiles/afieldfile/2012/10/04/1325048\\_1.pdf](http://www.mext.go.jp/component/b_menu/shingi/toushin/_icsFiles/afieldfile/2012/10/04/1325048_1.pdf)

船橋宏代(2016) 「外国人学生の自律的な日本語学習を支えるしくみ-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における位置づけ-」 『鈴鹿大学紀要Campana』 22, pp.1-3.

논문 투고 일자 : 2017. 06. 02.

논문 심사 일자 : 2017. 08. 02.

게재 확정 일자 : 2017. 08. 04.

---

**< 要 旨 >**

---

## 日本の学生新聞を利用した「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授業

趙英姫

社会的経済的環境が急変するなかで大学教育のパラダイムも変化を迫られつつある。特に若い世代の失業問題が社会的イシューとなり、また就職率が大学評価の基準となっているなかで、大学教育はこれから到来する時代を生きる上で必要な職業的能力を育てる教育に変化せざるをえなくなっている。ところで、第四次産業革命に代表されるこれからの時代には単純な知識の蓄積よりは能動的な学習能力や、他人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などが重要だとされる。本稿では、こういった時代的変化を考慮し、教授から学生へ一方的に知識を伝達する授業のやり方から脱皮し、学生が能動的に授業に参加する「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授業を設計し行った結果について報告した。また、授業で使った日本の学生新聞を教材として利用する方法についても紹介した。授業ではLMSを利用した事前学習を実施し、学生が自ら学習するように誘導した。語彙や時事用語の事前学習がなされた段階で行われる本授業ではLMSの事前学習の内容をお互いに共有したあと記事内容の理解、確認が行われる。記事内容の確認は学生同士でお互いに質問し、確認するようにし学生主導で行われるように配慮した。授業のあとはパラフレーズまたはエッセイの作成で記事内容を正確に理解しているか確認した。結果的に、「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の導入で授業の多くの部分が学生主導で行われ、能動的な学習能力や他人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の向上につながったと考えられる。

## The “Active Learning” Lesson Using Japanese Student Newspapers

Cho, Young-Hee

As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is rapidly changing, the paradigm of university education cannot help but also change. This is especially true, as the unemployment of young people is becoming a serious social issue. At the same time the employment rate is becoming the standard of university evaluation, as a result university education should be changing to cultivate vocational abilities necessary to survive in the future. Indeed, in the future era represented as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rather than the simple accumulation of knowledg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ommunication skills will be more important. Considering such changes of the time, this paper explored the idea of the “active learning” lessons which students actively participate in and then reported the results. It also introduced the method of using Japanese student newspapers as teaching material. In the lessons, the preliminary learning based on LMS motivated students to study on their own. In the main lesson, after completing the preliminary learning of vocabulary and current terms, the contents of LMS preliminary learning were shared, and then it was checked to see if the contents of the text were accurately understood through questions and discussions. After thr lessons, the students were asked to paraphrase the text or write on essay to see if the contents of the text were accurately understood. The results showed that, thanks to the introduction of “active learning”, many parts of the lessons were student-directed, which eventually led to the improvement of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ommunication skills with others.